

'전 남편 살인' 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부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정 사건'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 같이 미흡한 초동수사를 되풀이하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 독립'에 대해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는 것이다. 12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씨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지만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도 아직 찾지 못했다. 당초 피해자인 전 남편 A모(36)씨의

패스트트랙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불신·우려 깊어져

남동생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경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고씨란 것을 확인한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전화 조사를 했다. 당시 고유정은 "(피해자와) 아이 면 접교섭으로 25일 만났다. (피해자가) 던져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지 밤에 먼저 펜션을 나왔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 펜션을 나왔다는 고씨의 주장

과는 다르게 자신의 차량인 모닝이 펜션에 그대로 세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잡힌 이도1동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기지국 신호가 잡힌 이도1동은 고씨와 혐의를 벗기 위해 해당 지역에 이동해서 A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또, 경찰은 A씨의 유가족들로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했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경찰이 허위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고씨는 제주를 빠져나와 제주항-완도항 항로, 경기도 김포시 가족 소유의 집 인근 등에 시신을 유기했다. 또,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A씨의 남동생은 사건이 일어난 펜션 인근 주택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고씨가 지난달 25일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간 뒤, 27일 홀로 빠져나오는 수상한 모습이 담겨 있다. 고씨의 허위진술 여부와 당시 상황

을 파악하는 증거조차 A씨의 유족이 찾아준 것이다. 이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경찰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최종 기지국 신호를 중심으로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뒤늦게 고씨의 폭력적인 성향 등을 유가족으로부터 들었고 CCTV 영상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씨가 시신유기를 하기 전에 범행을 밟을 수 있었던 만큼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14일까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참가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의 전주 여행을 마이스(MICE)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9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서 전주 마이스 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주 관광자원과 마이스 시설을 홍보하는 등 국내외의 화 및 행사 유치에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마이스산업은 회의(Meeting)와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도 일반 여행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 수익과 관광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600여 개 국내·외 바이어와 셀러사 등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엑스포에서 전주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1:1 유치 상담회도 진행한다. 특히 외국인 바이어 40여 명을 대상으로 전주 시 회의 시설 인프라에 대한 지역홍보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의 마이스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질적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해야"

전주시, 어패류 익혀먹기·바닷물 접촉 주의 등 당부

최근 서울에서 올해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가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주요 증상은 △급성발열 △오한 △구토 △복통 △설사 △하지부종 △수포 △괴양 △괴사 등

이 나타난다. 특히 간 질환자와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전주시역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1명씩 환자가 발생해 모두 완치됐으며, 지난해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송효철 기자



항공대 소음 문제로 면담 중

12일 전주시청 시장실을 찾이한 완주군 이서면 시민들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서면 시민들은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한 전주항공대대의 비행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항공노선 철회등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전주시청 시장실을 찾이한 완주군 이서면 시민들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서면 시민들은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한 전주항공대대의 비행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항공노선 철회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21일까지 24개 고교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전주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전주시역 2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13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

비스'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고교 재학생들의 학업 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특수서비스이다. 시는 첫날 한일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해 대상 학교를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도시생태지도 만들기 착수

제작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 내년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

도시 전역 5000분의 1 지도에 표시 생태보존 가치별 등급화

전주시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토지이용 현황과 식생도, 동·식물 서식지 등을 담은 생태지도도를 완성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김양원 부시장과 환경단체 대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친화적인 토지 이용, 환경관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 11월까지 추진된다. 시와 용역수행기관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창환 교수)은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전주시 자연환경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지도인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 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전 가치 등을 표기하는 등 전주시 전역(205.8km)을 대상으로 5000분의 1 지도에 표시해 관리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관련부서와 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피복 현황, 식생도, 동·식물의 생태현황 조사 등을 거쳐 △보전가치 등급 구분 △지리정보시스템(GIS) DB 구축 △중요서식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지도가 완성되면 전주시 자연생태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친화적인 도시개발과 도시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나아가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향후 일반시민들도 생물다양성 보존과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이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완성된 지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부 관계자는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생태현황지도 구축이 완료되면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이같은 도시생태현황지도도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송효철 기자

44년만에 모녀 상봉

남편의 해외 입양 강행으로 이별

서안식씨, 작은 딸 조미선씨 만나

남편의 해외 입양 강행으로 자녀와 갑작스런 이별을 해야 했던 어머니가 전북경찰의 도움으로 40여년 만에 딸을 만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실종수사팀은 친모 서안식(69)씨로부터 "입양간 딸을 찾고 싶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2년여 간의 노력 끝에 작은딸을 찾아 모녀가 44년만에 만났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973년 작은딸 조미선(47)씨를 출산하고 혼자서 몸조리를 하기 어려워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서씨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첫째 딸 조화선(당시 4세)씨와 미선씨를 위탁기관으로 보낸 것이다. 5개월 간 몸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딸들을 찾아오라"며 남편과 별거하고, 큰아들과 지냈다. 수십년 간 남편이 딸들을 데리고 오길 기다린 서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년 3월 15일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화선씨와 미선씨가 각각 익산과 전주영아원에 맡겨졌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주영아원의 기록을 통해 미선씨가 1975년 미국 시애틀로 입양된 사실과 영어 이름은 맬린 리터(Maelyn Ritter)라는 사실을 확

인했다. 또 미선씨가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2004년에 방문한 것을 알게 된 경찰은 당시 입양을 주관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미선씨의 소재를 알아보려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미선씨가 페이스북(SNS)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 동명인(Maelyn Ritter)에게 메시지를 보내 입양 여부를 확인했고, 서씨는 "작은딸을 만나 너무 기쁘지만, 큰딸도 찾고 싶다. 많은 분이 도와주면 화선씨도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정을 전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12일 2019년 제2차 1차 시정공공예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현장 3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서신동 소재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에정지와 시설 현대화 및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수화원을 방문한 후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서학동예술마을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사업실명을 듣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쳤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활동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안전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학생 상습 폭행' 어학연수 인솔교사 2심서 집행유예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이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에 간 학생 11명을 상대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강석훈 기자

당시 인솔교사로 함께 떠난 A씨는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 '내 모자에 손댔다'는 등의 이유로 14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1심 재판 당시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일감 수주 문제로 갈등'

난투극 벌인 노동자들 체포

공사 현장에서 일감 문제로 시비가 붙은 끝에 난투극을 벌인 건설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모(37)씨 등 건설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난투극에 가담한 B모(32)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7분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모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난투극으로 노동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의 일감 수주를 두고 갈등이 생겨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감 문제로 다투다가 싸움이 붙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가 다수 발생해 사안이 중요하다"며 "관련자 모두를 입건했고, 피의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